

풀피리, 오픈기념식

최신 XL105 시리즈 앞세워 빠르고 깔끔한 인쇄로 승부

(주)풀피리(대표 이준)는 지난 5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에 위치한 사옥에서 오픈기념식을 열고, 1백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사의 인쇄시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경영계획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인쇄 분야에서 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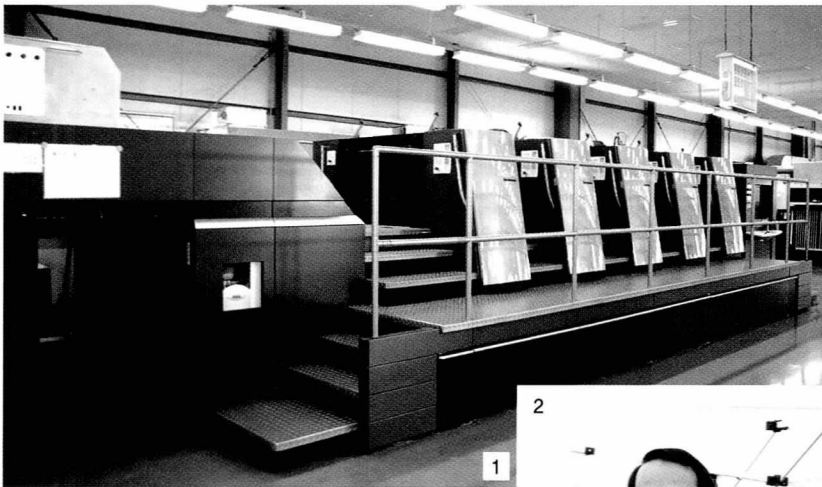
“과감한 시설 도입을 통해 인쇄 전후 공정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기획인쇄사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학습지 인쇄 중심에서 상업 인쇄까지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념행사에서 이준 풀피리 대표가 밝힌 각오다.

풀피리는 이 대표를 비롯해 몇몇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회사다. 사업자등록은 지난 해 12월 냈지만 시설 도입 계약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설비 가동에 들어간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조금은 독특하면서도 그 이름처럼 싱그럽게 들리는 풀피리라는 상호는 ‘항상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고.

과감한 설비투자로 대규모 시설 완비

약 670평 규모(실사용면적 450평)의 공장부지에 2동의 사옥을(기계실과 소부실로 각각 사용) 갖춘 풀피리는 현재 하이델베르크사의 XL105 4색기 2대, XL105 5색기 1대의 총 3대의 오프셋 인쇄기와 폴라 재단기 1대, 다수의 소부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인쇄업계에 첫 발을 내딛는 신생기업가운데 이 정도의 대규모 설비를 갖춘



1 하이델베르크사의 XL105 5색기
2 이준대표
3 기계실전경
4 소부실
5 사무실내부

곳은 찾기 힘들다.

이에 대해 이준 대표는 “인쇄품질이 점차 상향평준화 되어 가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기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주)폴피리가 가동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XL105는 드루파 2004에 처음 소개된 인쇄기로 750×1050mm의 더 커진 용지 규격과 속도 시간당 1만8천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프리셋 플러스 피더를 통해 안정적이며 정확한 급지가 이루어져 빠른 속도로 작업 물량을 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잉킹이 보장되어 고품질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 XL105 시리즈와 함께 기동중인 플라115 재단기 역시 중량감 있는 튼튼한 디자인으로 최고의 재단 품질을 자랑한다. 기계 작동이 쉽고 새로운 송풍장치로 연속적으로 에어가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도 약 30%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공정 구축으로 고품질 상업 인쇄 진출

폴피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준 대표는 올해로

인쇄업계에 몸담은 지 24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웅진출판사 및 삼화인쇄 등을 거치고 다년간 인쇄사를 직접 운영했을 만큼 경영은 물론 영업, 기획,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준 대표가 경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품질과 생산성이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기계에 대한 투자에 앞서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현재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폴피리는 정책적으로 직원에 대한 처우를 크게 개선하고자 월급제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폴피리 전임직원은 이날 기념행사를 마친 후 1박 2일 간의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지속적인 인적·물적 투자를 바탕으로 현 인쇄 중심에서 프리프레스, 후가공 전 공정에 이르는 워크플로를 구축해 생산 영역 확대를 꿈꾸고 있는 폴피리. 이를 바탕으로 학습지 인쇄 영역에서 일반적 고품질 상업 인쇄 영역으로까지 사업 무대를 넓혀가겠다는 그 행보를 주목해 본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